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9. 5. (금요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예고**

-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2026년부터 인증서 의무화...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 우선 적용 -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며 국제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본부에 게양된 유럽 연합기 (사진=EU)

CBAM은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을 거쳐 운영되어 왔으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 보고와 함께 인증서 구매 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적용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사실상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CBAM에 적용되는 품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운송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까지 포함돼 사실상 대부분의 상품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처럼 유럽식 보호무역주의 성격도 짙다.”고 분석했다.

국제 사회는 CBAM이 환경 규제 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탄소 저감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기술 격차와 에너지 비용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CBAM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 구조의 재편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 | | |
|---|----|------------|----------|
| 담당 부서 제3회 HLMUN PRESS팀 | 팀장 | 총괄 | 안태현 |
| | 팀원 | 기사 작성 및 번역 | 맹민주, 김지민 |
|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39th_baekya@naver.com | | | |
| 한림대학교 제3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 | | |